



5월 14일  
금요일

# 보 도 자 료

생명의 땅 으뜸진남  
Land of Life, Best Jeonnam

|    |       |    |     |    |     |   |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|----------|
| 실과 | 식량원예과 | 과장 | 박철승 | 팀장 | 최만수 | ☎ | 286-6480 |
|----|--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|----------|

## 김영록 도지사, 나주 배 저온피해 현장 방문

- 배 저온피해 농업인 위로 및 피해 정밀조사 철저·신속한 복구지원 약속 -

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나주시 금천면 소재 배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,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당부했다.

이번 배 저온피해는 지난 4.14~15일에 발생한 저온(영하 2℃) 영향으로 4월초 배꽃 인공수분 이후 정상적인 수정이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.

김 지사는 까맣게 변해버린 배 꽃을 살핀 후 “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철저한 조사 및 신속한 복구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”며, “매년 반복되는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아울러 이 날 피해현장을 함께 찾은 신정훈 국회의원은 “저온에 따른 배꽃 수정불량으로 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분한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지원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전남도는 저온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지난 4.20. 부터 오는 6.2.일까지 농가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조사하고 있으며,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재해보상에 누락 되는 농가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한편, 금년4월 도내 농산물 저온피해는 5.13일 기준으로 532ha로 잠정 집계 되고 있으며, 그 중 배가 460ha, 단감 20ha, 사과 9ha, 오디 9ha, 귀리 6ha로 집계되고 있다.